

현대공업, 제네시스 GV60 전기차 부품 양산돌입

- ▶ 6년간 약 100억 원 규모 매출 전망
- ▶ 프리미엄 신차 부품 공급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성 기대

<2021-11-02> 자동차 내장재 전문기업 '현대공업'(170030, 대표이사 강현석)이 제네시스 GV60에 암레스트와 시트패드 공급계약을 맺고 양산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급계약으로 향후 6년간 총 100억 원 규모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전체 생산규모는 14만 대 수준이다.

암레스트와 시트패드는 현대공업의 주력 제품이며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제네시스 G80, GV70, GV80 등 프리미엄 모델에 공급 중이다. 여기에 GV60 전기차를 더해 제네시스 프리미엄 모델 매출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만큼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 전기차 제네시스 GV60는 지난달 6일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해 최근 예약 건수가 1만 5천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현대공업 관계자는 "GV60를 비롯한 프리미엄 차종 공급 확대는 현대공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중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트렌드와 함께 전가차종을 비롯한 기존 차종 부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